



LOCALLY

부산 생활 문화 매거진
브 · 로 · 컬 · 리

2020 WINTER
Vol. 07

DONGNAE



CONTENTS



04

브로컬리 투어
B로컬러가 추천하는
동래 역사 탐방 여행

08



부산한 우리
동래, 동네

12



BUSAN NER
부산을 그리다
두 번째 고향, 부산



14

B스켓
새처럼 바람처럼 하늘을 날다
- 배우삼 지연장



16

까만붕다리
다정한 이웃이 기다리는 시장
- 동래구 동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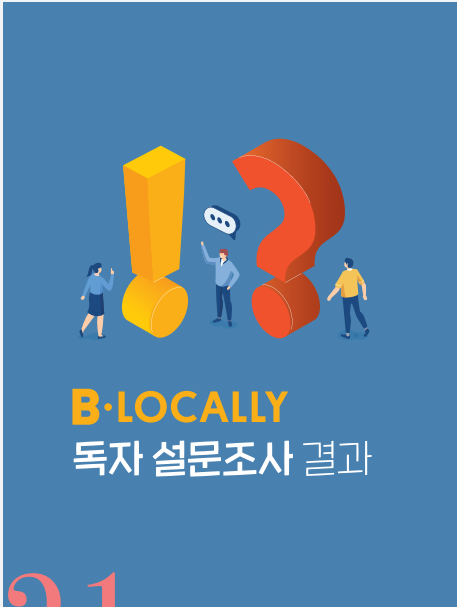


특별한 저녁
부산의 문화를 담은 로컬 미디어 051FM
- 정육교 051FM



20

취확행
다양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악기, 색소폰



21

B·LOCALLY 인포그래픽스
브로컬리 독자 설문조사 결과

22



보라카이
행복을 굶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
- 기차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
2020 WINTER B·LOCALLY Vol. 07

발행일 2020.12.04. 발행인 강동수 감수 이미연 PM 하경희 기획 오수진 하영문 편집실 한성
1918-부산생활문화센터 TEL. 051-257-8038 통권 6호 ISSN 2671-910X 발행처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3(동광동) 한성 1918-부산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광역시 디자인·제작 CCA TEL. 051-647-5991 발간인 정형권 인터뷰·
에디터 정해린 디자인 하정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매거진 B·LOCALLY 브로컬리는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에서 만듭니다.

COVER STORY

동래읍성의 성벽 길을 천천히 오르다보면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복문에 다다릅니다.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동래의 모습을 잠시 느껴볼까요. 부산 역사의 뿌리, 동래는 살아 있습니다.

브로컬리 길라잡이

시장 한쪽에서 언제나 반겨주는 채소, 브로콜리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로컬의 이야기를 담은 브로
컬리에도 겨울이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역사의 뿌리를 간직한 동래구를 찾았습니다.
브로컬리 투어에서는 도심 곳곳에 위치한 동래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해보는 투어 코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줄 문화 공간들을 소개하는 **부산한 우리**에서는 동래를
더욱 젊은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네 곳의 장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부산에 대한 사연을 지닌 그들의 이야기, **BUSAN NER**에서는 독일로 떠난 부산녀와 인도에서 온
부산녀의 일상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비스켓보다 맛있는 예술 한 조각, **B스켓**에서는 연과 한 평생
을 살아온 배우삼 지연장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저녁**에서는 부산의 생생한 모습을 들려주
는 로컬 팟캐스트 051FM의 정육교 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미로 얻는 확실한 행복, **취확행**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악기, 색소폰을 소개합니다.
이어 **B·LOCALLY 인포그래픽스**에서는 브로컬리 독자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복을 굶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 기차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의 모습을 **보라카이**에
담았습니다.



역사의 뿌리 동래,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뽐어나가다

분주함이 감도는 동래역과 커다란 건물들 사이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들이 숨어 있는 곳, 동래. 도심
에서 멀리 많은 문화재들을 만나러 잠시 두박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동네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있는
동래의 매력을 로컬 지도를 통해 발견해보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브로컬리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는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호에 발간될 브로컬리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1918.bscf.or.kr)로 접속 후 게시판의 기고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한성1918 인스타그램
브로컬리에서 다음호 소재와 독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B·로·컬·러·가·추·천·하·는

동래역사
탐방 여행

동래는 예로부터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아 사람들이 거주지로 선호하는 곳이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동해남부선까지 거쳐 가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북구부터 금정구와 연제구, 해운대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만남의 장소로도 인기가.

특히 동래역(1호선) 주변 명륜1번가는 먹거리 골목이 형성되어 있어 퇴근 후나 주말이면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옛 부산의 중심지였던 동래에는 도심 곳곳에 현대적인 건물들과 주민들의 삶터 사이로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오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 시절의 위엄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동래구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타 지역사람들보다 크다. 동해남부선 동래역에서 출발하여 삼한 시대의 흔적을 찾아보고 옛 동래부의 중심인 동헌과 동래읍성길을 따라 걸으면서 옛 정취를 느껴보려 한다.

글 남민숙(미디어공동체 수민동락 대표) 사진 윤민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해남부선 동래역

동래 기차역은 동래구 낙민동 12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동해남부선의 보통역이다. 동해남부선이 부설되면서 생긴 역으로 1934년 8월에 신축하였고 수차례 개·보수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해남부선 출발지인 부전역에서 울산 역으로 연결하는 중간 기착의 역할을 하는 역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동래지역에 물자를 실어주는 운송수단은 물론 여객수송을 담당하였다. 복선 전철화 사업 이후로는 고가역으로 탈바꿈했지만 신 역사 앞에 구 역사를 그대로 남겨 놓았으며 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되었다. 한 마디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멈춘 옛 동래역은 역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였지만, 근대건축물의 형태를 가진 역사는 그대로 보존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

예전에는 동래역 앞에 매일 새벽시장이 열렸다. 새벽에만 열리고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하여 일명 '번개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새벽시장에는 멀리 기장읍이나 일광면에서 새벽기차를 타고 오는 장사꾼들도 많이 있었다. 새 역사가 생기면서 인근지역 정비 사업으로 인해 새벽시장이 폐쇄됐고, 현재는 그 상인들이 매주 일요일 수안인정시장 곁에서 골목에서 상점들이 문을 열기 전까지 장을 연다고 한다.



사진 1 구 동래역사 외부 전경

삼한 시대의 중심지 부산 동래 패총

구 동래역사 옆으로 난 공원을 가로 지르면 동래 패총을 볼 수 있다. 동래 패총은 부산시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삼한 시대의 패총이다. 원래 낙민동, 수안동에 걸친 낮은 구릉지대의 서남쪽 경사면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대규모 유적이었으나 현재 대부분 파괴되고 220평만 보존되고 있다. 동래 패총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기원 전후의 한 시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2>

동래의 위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

구 동래역사와 동래 패총까지 둘러봤다면 전통시장과 문화재가 밀집돼있는 지하철 4호선 수안역으로 향한다. 수안역 7번 출구에서 국민은행을 돌아서 길을 걸으면 동래부 동헌과 장관청, 동래시장 등에 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동래부 동헌 부근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옛 동래의 중심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장관청은 동래부 소속 군사장관들의 집무소이며 현재 이 건물은 사단법인 동래 기영회가 관리 및 사용하고 있다. 수안역에서 나와 이정표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처 식당을 이용하면서도 이곳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동래부 동헌은 조선시대 지방의 고을 사또인 수령이 공적업무를 처리했던 곳으로 오늘날로 치면 시청에 해당한다. 행정의 요지인 셈이다. 동래는 국방 및 대외의 교상 중요한 고을이었으므로 관아시설도 다른 고을에 비해 위용을 제법 갖추었고 규모도 컸다고 한다. 동헌은 충신당(忠信堂)이라는 현판을 걸고 개항기까지 사용되었다.

사진 3



사진 2

충신당의 부속 건물로는 본당의 좌우로 동익랑과 서익랑이 있고, 대문은 안대문에 해당하는 동래도호부아문과 바깥 대문인 동래독진대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익랑은 철거되었으며 동익랑은 축소된 채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동헌은 상시 개방이 되어있으며 해설사가 상주해 탐방객의 탐방을 돕는다. 또한 조선시대 복식체험이나 곤장체험, 전통놀이 등이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더한다. <사진3>

동헌을 나와 담벼락을 따라가면 동래시장이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 수안인정시장도 있어 전통시장을 둘러볼 수 있다. 대형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의 기세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동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 편이다. 또한 아주 먼 옛날에도 시장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것을 생각하면 과거와 현재를 함께 상상하는 즐거움을 클 것이다. <사진4>

동래읍성 복문 가는 길,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

이번에는 수안역 부근을 지나 명륜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본다. 명륜동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동래읍성 복문으로 가는 초입길을 찾을 수 있다. 초입길에 서면 잘 짜인 안내도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출발하여 서장대와 복문을 거쳐 북장대까지 쉬엄쉬엄 걸어가 보는 것도 좋다. 길게 늘어선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도심 속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 휴일이면 가벼운 복장으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내려오는 주민들로 북적거리며 곳곳에서 자리를 펼쳐놓고 가을을 즐기는 무리도 쉽게 볼 수 있다.

동래읍성은 조선시대에 부산의 중심지였던 곳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곽이다. 성곽 내에는 관청 건물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이 있는 행정의 중심지가 형성돼 있었으며, 일본과 인접해있는 해안지역의 고을이라 왜적을 막는 방어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동래읍성은 동장대(東將臺)가 있는 망월산에서 복문이 있는 마안산을 거쳐 서장대(西將臺)가 있는 동래향교 뒷산까지 길게 연결돼있다. (장대는 성 밖을 멀리 관측하는 전망대이자 군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이다) 동래읍성은 산과 구릉 및 동래 시가지지를 모두 에워싸고 있는 광범위한 성이며, 성곽의 양식은 산성과 평지성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읍성의 문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모양이라고 한다. 특 튀어나온 모양을 *치(雉)라고 하는데 이는 성벽을 쉽게 내려주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모양이다. <사진5>

*치(雉):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을 쏘기 위하여 성벽 밖으로 여기저기 내밀어 쌓아 놓은 돌출부

사진 5



사진 6



사진 4

성벽을 따라 올라가면 복문이 나오는데 부산의 전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복문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로, 명륜동뿐만 아니라 온천장 쪽에서 올 수 있는 길도 있다. 복문 근처에는 넓은 광장과 쉼터,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한숨 쉬었다 가기 좋으며 읍성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안내판도 있어 산책에 재미를 더한다. <사진6>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이다. 하지만 덕분에 밖을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향했다. 가까이 있기에 자세히 보지 않았던 일상과 마주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면 좋겠다. 이번 주말에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동래의 오래된 역사를 직접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 2 사적 제192호 동래 패총

사진 3 동래부 동헌 전경

사진 4 동래부 동헌 바로 옆의 동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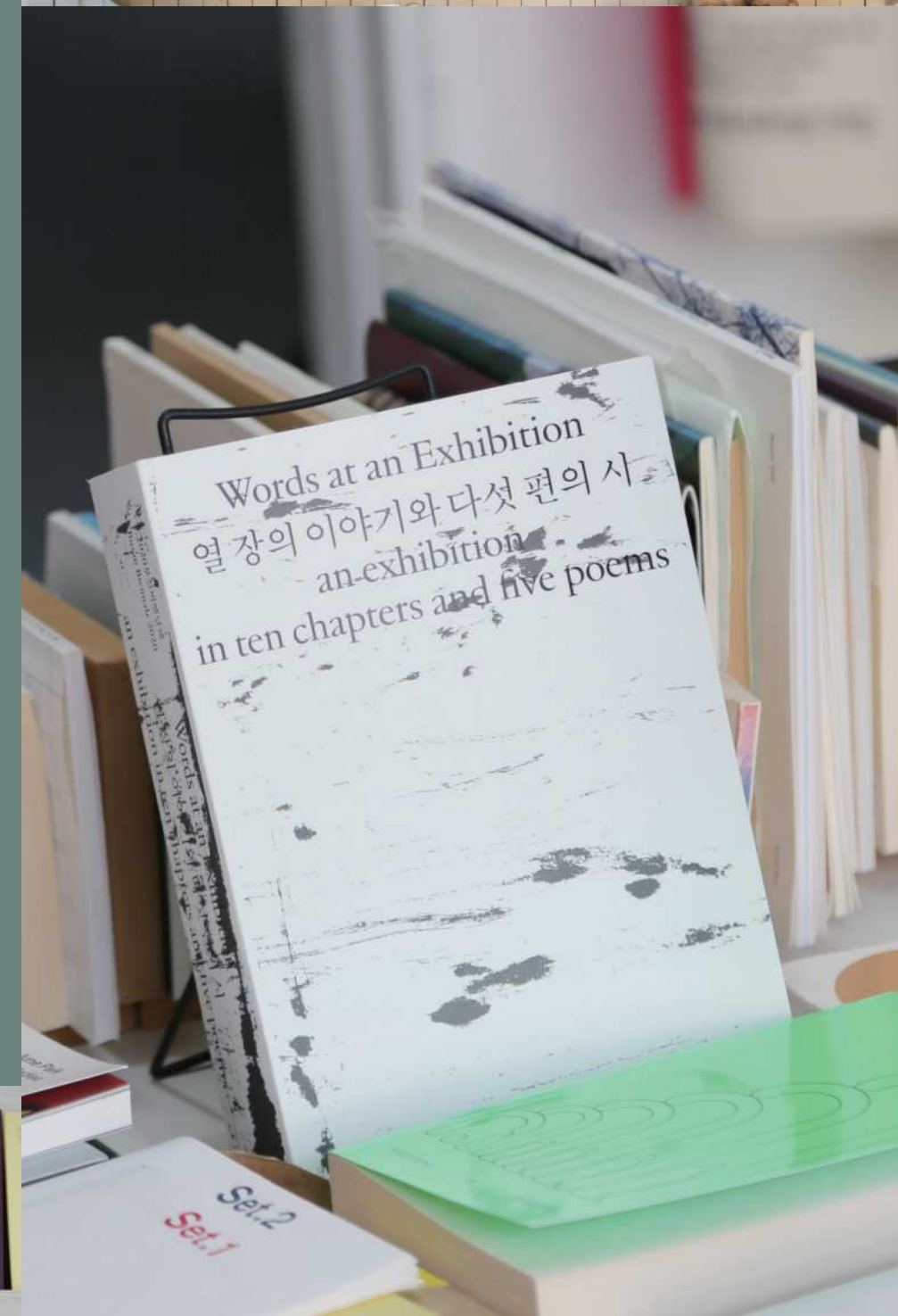
사진 5 동래읍성 성벽길 풍경

사진 6 동래읍성 복문

동래, 동네

제자리에서 고요히 중심을 지키는 동래는, 누군가의 동네다.
어떤 이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며,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정착지가 되어준다.
오래된 기차역과 정겨운 시장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반면, 젊은 분위기의 카페거리까지 함께 품고 있어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동래는 살아가는 곳, 동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것들과도 마주해나가고 있다.
아직 문화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곳이 동래가 아닐까?
모든 세대와 성별을 아울러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존재하는 이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를 바란다.

글 박태성(온기앳더모던츠 대표)
사진 박태성, 윤민호



온기앳더모던츠
스페이스 움
책방숲
북살롱 부산



온기엠티모먼츠

(구)동래 기차역이 자리한 낙민동 곳곳에는 향수의 물결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온기 엠티 모먼츠(이하 온기)’도 사라지는 하나의 공간에서 만들어졌다. ‘목욕탕’을 떠올리면 어렸을 적 엄마 따라 여탕에 들어갔던 기억부터 때가 안 밀린다며 답답해하는 나를 억지로 온수탕에 담가줬던 아버지와의 추억, 따뜻한 온기가 그득한 목욕탕에서 세신을 끝내고 마시는 바나나 우유 한 잔 같은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억들이 담겨있는 공간, 목욕탕이 세월의 변화에 밀려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온기는 3년 이상 비어있던 목욕탕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로 발생하는 관계가 목욕탕과 닮은 점은 따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목욕탕이 지녔던 온기와는 다른 의미의 온기겠지만 어쨌든 향수 어린 그 따스함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온기는 청년 아티스트들에게는 비용 없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갤러리로, 자신의 특기나 재능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누구나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누구든 문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자가 될 수 있는 곳이다. 2019년 8월에 오픈한 온기에서는 약 10회 이상의 전시회가 열리는가 하면 포토샵·일러스트 교육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북토크콘서트와 마음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 목욕탕’, 팟캐스트 진행까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다. 온기를 찾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만나는 입간판에는 ‘문화 예술로 목욕합니다’라는 문장을 만날 수 있다. 온기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로 목욕하고 실험적인 도전을 해보며 주춤했던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공간이다. 온기가 만들고자하는 ‘온기’가 부디 지역 곳곳으로 스며들기를 바란다.

위치 동래구 총령대로272번길 8 2층
운영 별도문의
문의 010-8959-4910



스페이스 움

온기 엠티 모먼츠가 젊은 감성을 중심으로 다목적의 복합문화를 수용하는 공간이라면, 스페이스 움은 보다 밀도 높고 진중한 문화예술을 만들어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온기 엠티 모먼츠의 온기가 목욕탕의 문을 열었을 때 혹 들어오는 가벼운 열기라면 스페이스 움의 온기는 사우나 실에서 느끼는 무겁고 단단한 열기랄까.

동래역과 수안역의 중간 즈음 위치한 스페이스 움은 이번에 소개하는 네 개 공간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클래식, 전통음악, 앙상블, 재즈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및 생산자들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도 한다. 스페이스 움의 홈페이지에 대관 예약을 진행하고자 하면 하나의 문구를 만나게 된다. ‘자유롭고 신선한 예술인들에게 스페이스 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한 때 ‘예술다운 예술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그 질문 속에서 찾은 답은 ‘예술이란 대중의 기호성을 따라 가는 것을 뛰어넘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작품과 작가가 아닐까.’라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이스 움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예술인들이 모여드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준다. 클래식과 전통음악처럼 각 장르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 있는 문화행사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스페이스 움에 유치된 문화 공연만 해도 300회가 넘었다. 고유한 예술이 가진 가치를 보존하면서 문화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이는 공간 스페이스 움은 동래구의 문화 사랑방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위치 동래구 영문로 106 혜준빌딩 1층
운영 매일 10:00-22:00, 일요일 휴무
문의 051-557-3369



책방숲

벚꽃이 피는 봄이 되면 인파가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 중 하나가 온천천 길이다. 반면 가을의 온천천은 비교적 한산한 길이 된다. 그 한산함 속, 눈에 띄랴 말랴 하는 작은 서점이 보인다. 이름은 책방숲.

밖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작은 이 독립서점에는 새 책보다 더 짙은 책 냄새를 풍기는 종고 서적들이 드문드문 진열되어 있다. 대부분 미술과 도시건축, 그래픽디자인에 관련된 책들이거나 예쁜 일러스트로 도배된 동화책들이다. 글쓰기 수업에 대한 포스터와 함께 이야기지기한 소책자도 눈에 들어온다. 작년까지 진행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중단된 글쓰기 수업의 결과물들이라고 한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바꾸어놓은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부분까지 침투해 여유를 앗아가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 글쓰기 또한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매체일진데 코로나 시대에 이런 글쓰기 활동을 모여서 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었을 것이다. 책방의 정중앙에는 글쓰기 수업에 대한 대표의 생각이 담긴 글이 놓여 있다. ‘글쓰기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낼 것인지 묻고, 자신이 쓴 글로 타인과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문장이다. 입구를 지나 들어오면서 ‘이렇게 작은 서점 이름이 책방숲이라니?’ 하며 의문을 가졌던 내가 왜 이 곳이 ‘책방숲’인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한 문장이었다. 숲은 단순히 크고 작은 자연이 모여 사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숲은 수많은 동식물이 용기를 내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책방숲은, 책과 글쓰기로 숲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숲에는 생명이 모여야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책방숲 또한 사계절 내내 온천천 길에서 더 큰 의미를 심어주는 인문학적 숲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위치 동래구 온천천로431번길 25-1
운영 평일 11:00-18:00, 토요일 14:00-20:00, 화·일요일 휴무 / 토요일 격주 휴무
문의 010-8943-5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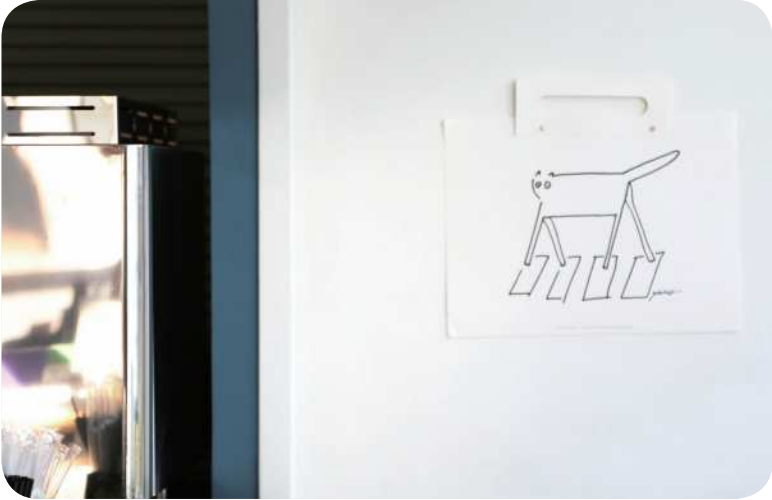


복살롱 부산

살롱(salon)은 17-19세기 경 문화와 예술, 정치 등 다양한 담화거리로 토론을 하던 장소 또는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문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단어다. 복살롱 부산은 21세기형 살롱을 표방하는 공간이다. 독립출판과 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읽고 느끼며 공유하고, 배우며 가르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세시대의 살롱은 주로 귀부인들이 주축이 되어 사교활동을 위해 운영됐다. 복살롱 부산에도 대화와 교류를 좋아하는 대표와 매니저가 함께 방문자들을 반겨준다. 건물 2층에 위치한 복살롱을 오르는 계단 곳곳에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포스터들이 붙어있다. 도시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강의부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독립출판으로 책을 쓰는 저자와 출판사 관계자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야말로 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복살롱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또한 온천천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따사롭게 들어오는 햇살과 풍경은 독서에 감성을 더해준다. 책을 사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종고 책들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구입해 커피 한잔과 토스트까지 곁들이면 그야말로 식도락 독서가 완성된다. 희미해지고 있는 독서문화를 밝힐 수 있는 복살롱 부산은 멀어지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가까이 만들어주는 공간이자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수용하게 만들어주는 열린 공간이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어 여유롭게 책을 음미하고 싶어지는 공간, 복살롱 부산을 소개하고 싶다.

위치 동래구 온천천로 197 3층
운영 매일 10:00-21:00
문의 070-7842-1809



부산을 그리다

글·사진 하부성
독일로 떠난 부산너

부산은 나에게 외로운 곳이었다. 인구 30만을 웃도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19년을 우물 안 개구리처럼 보냈던 내가 스무 살에 마주한 부산은 복잡하면서 쓸쓸한 도시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온 부산 여행에서 해운대의 빌딩 숲을 보고는 '이런 갑갑한 곳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어 더욱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후에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며 5년이나 살게 될 줄은 몰랐다. 막 부산에 왔을 때는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외로워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다. 단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외향적일지 몰라도 사실 내향적이고 외로움을 많이 타던 내가 홀로 보낸 시간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스무 살,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부산대 기숙사 방에서 홀로 맛았던 연말의 쓸쓸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학기가 지나면서 마음 맞는 친구들도 생기고 좋은 인연도 만나며 점점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학교 앞 장전동부터 승부에 눈이 멀어 멀쩡한 니트 하나를 버리게 됐던 송정, 옛 추억에 대한 그리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해운대 등 부산의 여러 장소를 나만의 추억으로 꾸미고 있었다. 그렇게 5년 동안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은 후에 2015년 겨울, 나는 또 한 도시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떠나기 전만 해도 '기껏해야 2~3년 만에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유학은 길어졌고 나는 또다시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느라 겨우 정을 붙였던 부산을 잊어가고 있었다.

독일의 날씨는 매우 건조하다. 한국처럼 바다가 3면을 둘러싸고 있지 않아 신선한 생선을 쉽게 먹을 수도 없고 바다를 자주 볼 수도 없다. 사실 부산에 사는 동안에도 바다에 간 적은 손에 꼽겠지 만 그래도 바다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익숙한 한국어 대신 독일어가 들리며 학교 앞에서 사 먹던 정문 토스트나 족발 같은 음식들이 되너(독일식 케밥)와 슈바인학세(돼지고기 요리)로 바뀌었다. 그렇게 몇 년 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게 된 것처럼 부산도 나에게는 이제 당연한 곳이 아니었다.

독일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소개할 때마다 "사투리 쓰시네요? 부산 사람이세요?"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다. 왠지 모르게 나의 출신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어서였을까, 아니면 이제는 부산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분명 부산에서 보냈던 날들은 행복했음에도 "아니요, 부산에서 대학만 다녔고 본적은 경남이에요"라며 부산을 그저 살면서 머물렀던 장소 중 하나라고 치부하며 선을 그었다. 이처럼 더 이상 부산이라는 추억 속에 빠져 살지 않으려 한 나에게도 독일에서 만난 부산 사람들은 정으로 나를 품어 주며 초기 정착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 덕분에, 부산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니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를 알았다. 나는 부산을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여전히 나는 부산을 그리워한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던 가파른 부산의 오르막길, 해운대역에 내리면 코를 찌르면 바다 짙내, 강한 사투리 억양까지 그 모든 게 그림다. 내년이면 길고 길었던 유학생활도 막을 내릴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부산에서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헤어진 연인과의 좋은 추억을 안고 다시 그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렌다.

나는 다시 부산의 바닷물에 스며들게 될 것이다.

저는 4년 전 즈음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 인도를 떠나 부산으로 왔습니다. 처음 부산에서의 유학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안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바다는 늘 특별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떠날 집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머무는 처음 1년 동안에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의 매력을 알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앱을 참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부산의 곳곳을 여행했거든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금세 부산과 사랑에 빠졌어요. 부산의 한편에는 구름을 뚫고 올라갈 만큼 높은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높은 산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떤 때에는 일출을 보러 부산대학교에서 출발해 해운대에 갔다가, 다시 다대포로 넘어가 일몰을 구경하기도 했죠. 커피 한 잔을 들고 가만히 그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곤 했어요.

역사라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인도에서 온 저에게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시간은 정말이지 즐거웠어요. 양국의 문화와 생활방식 사이에서 유사성도 배울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 덕분에 부산국제연극제(BIPAF)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연극과 배우들에 대한 동경으로 부산국제연극제의 외국인 홍보대사에 지원했고, 이후 2년간 이 연극제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했어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은 제게 큰 영광이자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주중에는 부산대학교 연구생으로 바쁜 일과를 보내며 연구실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주말이 되면 카메라를 들고 도시 구석구석을 탐방하러 떠났어요. 이렇게 부산을 여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길을 잃을까 걱정할 적은 없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준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여유로운 주말을 보낼 때면 커피 한 잔을 들고 부산대학교 전철역 근처를 걷곤 했어요. 특별히 지역에 남는 일이라면 1학년 때 보았던 첫눈이예요. 첫눈은 첫사랑을 뜻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부산에서 보낸 첫해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눈을 보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난생처음 경험한 눈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게 부산은 그야말로 제2의 고향이에요. 제가 우울하거나 지칠 때면 이 도시는 어떻게든 저의 기운을 북돋아 줘요. 이 도시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제가 자란 고향이 떠올라요. 기회가 된다면 가능한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도시에 머물고 싶어요.

두 번째 고향,
부산번역
박지현글·사진
Sriramulu Dinesh Kumar
인도에서 온 부산너

From Busan to Germany

From India to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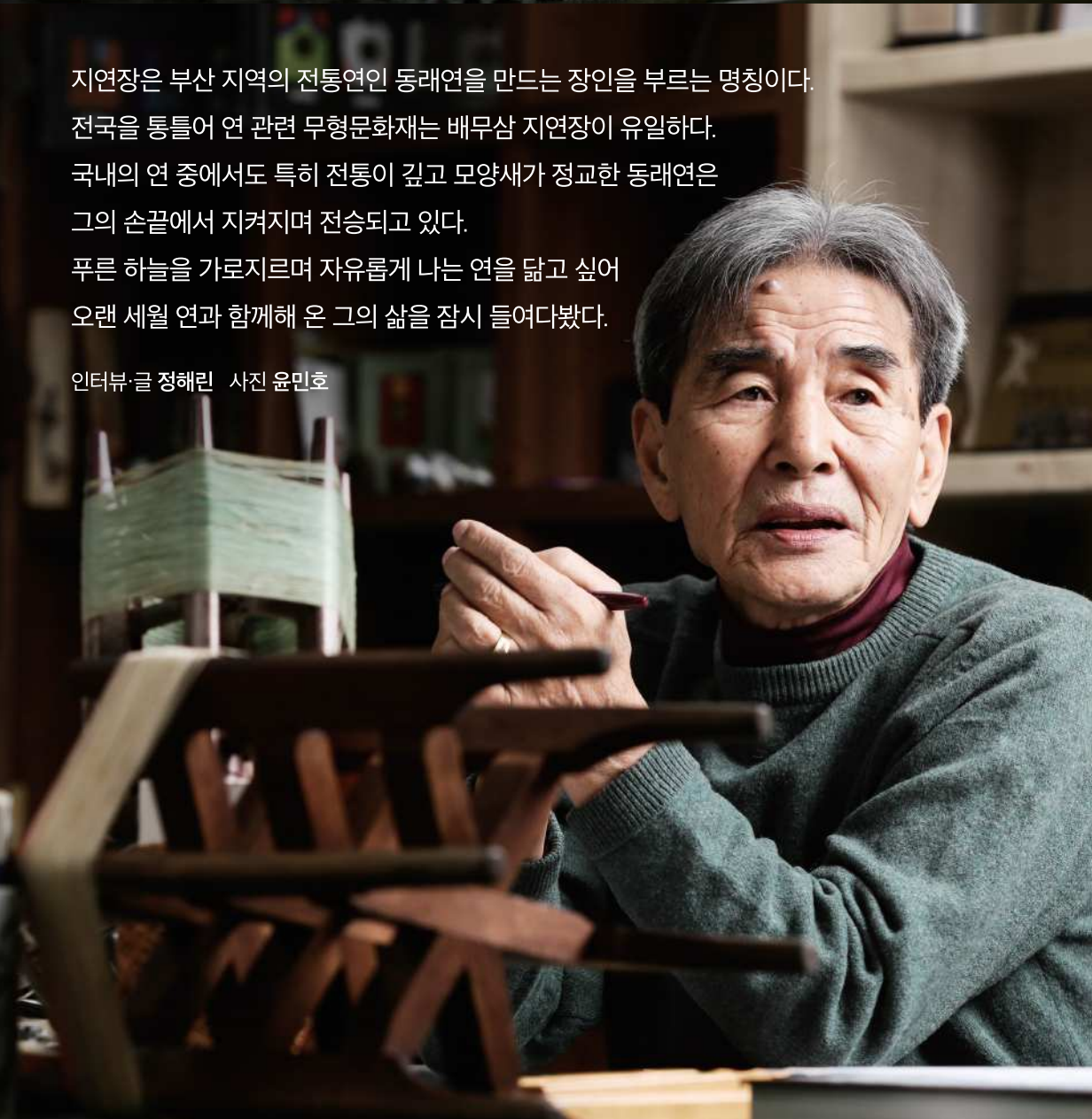


새처럼 바람처럼 하늘을 날다

부산 무형문화재 제21호 배무삼 지연장

지연장은 부산 지역의 전통연인 동래연을 만드는 장인을 부르는 명칭이다. 전국을 통틀어 연 관련 무형문화재는 배무삼 지연장이 유일하다. 국내의 연 중에서도 특히 전통이 깊고 모양새가 정교한 동래연은 그의 손끝에서 지켜지며 전승되고 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나는 연을 닮고 싶어 오랜 세월 연과 함께해 온 그의 삶을 잠시 들여다봤다.

인터뷰·글 정해린 사진 윤민호



선생님의 연에 대한 첫 기억은 언제이신가요?

저는 7살 때 대구에서 부산으로 넘어왔어요. 어렸을 적에 영주동의 산에서 연을 날리면 중간에 있는 보수동, 산 너머 아미동까지 날아가 연을 잘라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 당시에는 6·25 피난민들이 많으니 겨울이 되면 부산에서 각 지방의 연을 날리곤 했어요. 피난 시절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연들을 부산에서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연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1973년도에 MBC 주최로 해운대에서 연날리기대회가 있었어요. 방송에서 대회 소식을 접하고 처음 출전해서 6등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3등까지만 시상을 했었죠. 다음 해에 또 나갔는데 그때 보니 주관처가 부산민속예술보존 협회였어요. 협회에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젊은이가 와서 연을 만들고 띄우는 것을 눈여겨보셨나 봐요. 그때 어르신들의 권유로 협회에 가입을 한 뒤, 연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해마다 연날리기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이 때 연을 가르쳐주신 스승님도 만나게 되셨다고요.

그 당시에 어시장에서 노조를 관리하는 일을 했었는데 밤에 근무를 했었어요. 일을 하지 않는 낮 시간에 좋은 생선을 싸들고 협회에 가서 어르신들과 밥도 먹으며 연 만드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작고하신 한태정 선생님께서 제게 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시며 참 잘해주셨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연 만드는 것 네가 맡아서 하도록 해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저에게는 유언처럼 남았어요.

동래연이 다른 지방의 연과 무엇이 다른가요?

동래연은 연의 살을 다듬는 방법이 타지방과 달라요. 타지방은 대나무를 그냥 납작하게 깎아서 만드는데, 동래는 한쪽은 평평하지만 반대쪽은 둥근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살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연에 살을 붙이는 방향도 타지방과 반대예요. 일반적인 방향과 반대로 휘어붙이기 때문에 연의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이런 방법들을 한태정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서 동래의 전통연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해마다 국제연날리기대회가 열리는데 197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0회가 진행됐어요. 부산에서 50회를 넘긴 민속놀이 대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깊은 부산의 전통놀이가 바로 연날리기에요. 그동안 대회를 열면서 정립된 대회 규정부터 연 만드는 방법까지 많은 것들이 동래에서 시작되었죠.

해외와 국내의 연을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해외에 다녀 봐도 우리 연이 가장 우수해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명주실을 쓰는데 가볍고 질기며 열에 강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조상들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외국에서는 천이나 비닐을 사용해서 연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만 한지를 쓰죠.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방패연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가오리연으로 연 싸움을 하는데 가오리연은 한 번 띄우면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회용으로밖에 사용이 안돼요. 그에 비해 가운데에 방구멍이 있는 방패연은 힘이 강해요. 이 방구멍으로 바람이 회오리를 치며 빠져나가면서 연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장력이 세죠. 바람을 흘려버리기만 하는 가오리연에 비해 방패연이 훨씬 잘 날아요.

일반인들에게 연날리기의 좋은 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연을 만들고 띄우는 것은 다른 레저 활동보다 경비도 작게 들고 운동도 많이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 몸을 아래로 움직이고 생활하죠. 하지만 알레를 감고 연을 띄우다 보면 고개가 위를 향하게 되고, 눈도 연과 하늘을 보게 되니 동시에 눈 운동도 돼요. 떨어진 연을 줍는 것도 그 자체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 꼬박 연을 날리고 나면 운동량이 엄청나요. 과격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며 마음도 즐거워져요.

선생님께 직접 연을 배울 수도 있나요?

제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 부산전통예술관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출강을 나가기도 합니다. 수업을 통해 연에 대한 설명도 듣고 연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전통예술관에는 저를 포함해 무형문화재 여섯 분이 계시고, 홈페이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요?

누구나 와서 연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연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가까운 일본만 봐도 나가사키와 후쿠오카 등 열군데 정도에 연 박물관이 있고, 중국에도 세 곳 정도가 있어요. 한국의 연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말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연을 볼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는 것이 아쉬워요. 이 좋은 문화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연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직접 연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해요. 지금 상주하고 있는 전통예술관은 사실 교통이 불편해요. 국내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시간에 쫓기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교통이 편해야 방문해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지금은 저에게 연을 배우고 있는 장학생과 전수자가 있지만, 제 후대에 과연 이 문화가 잘 보존이 될까 하는 염려스런 마음이 있어요. 연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면 연금이 나오는데 공예품을 하나 만들어 상을 받았다고 쳤을 때는 그걸로 끝이예요. 그 공예품을 개발하고 장려해서 대한민국의 상품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보완하고 그 지역에 와야만 살 수 있는 전통적인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야 해요.

부산전통예술관 가는 길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63
문의 | 051-758-2530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홈페이지 | <https://www.btac.co.kr/>

다정한 이웃이 기다리는 시장

동래구 동래시장

글 손영주 사진 윤민호

‘어이쿠.’ 얼굴을 때리는 새벽 찬바람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린 환경미화원이 이내 빗자루를 고쳐 쥐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아직 본격적인 추위는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바람이 제법 매섭다. 싹싹싹싹. 빠르고 정확한 빗질이 거리 구석구석에 쌓인 쓰레기를 말끔히 털어낸다. 살짝 요령이 필요한 표지석 주변도 노련한 빗질이 오고가자 금세 깨끗해진다. 옛 동래읍성 남문터 표지석부터 가로등과 함께 주르르 늘어선 독립운동가들의 기념석, 부산 3·1 운동의 중심이었던 동래고등학교 옛터 표지석까지... 시장 바로 앞 만세거리의 평범한 상점가와는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이곳 동래시장에서는 익숙한 풍경이다.

새벽 찬바람이 가실 즈음 청소를 마친 환경미화원이 자리를 뜨면, 거리는 하루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뜨끈한 밥 한술로 배를 채운 상인들이 가게에 나와 셔터를 올리고, 물건을 실은 트럭들은 골목골목 파고들어 집을 내린다. 하지만 시장 특유의 좁은 골목은 일방통행 도로가 많아 차를 대기가 무척 까다롭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분들을 모신 송공단 앞도 그렇다. 만세거리 끝자락에 있는 치안센터를 지나 동래시장 건물을 따라 비탈길을 오르면 바로 보이는 송공단 앞 도로는 맞은편의 가게에 앉아 있으면 참배객들을 위해 활짝 열어둔 문으로 제단과 비석이 보일 만큼 좁은 길이다.



시장 건물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는 동래부 동헌 대문 앞은 2차선 도로가 나 있어 괜찮은데, 그 뒤편으로는 영 길이 좁다. 하긴 시장 골목이란 게 다 그런 법이다. 어느 시장과 다른 점이라면 가게 면전에 문화재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정도랄까.

본래 동래라는 곳이 삼한 시대부터 지역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며 3·1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거기다 물 좋은 온천까지 솟아나는 곳이라, 온천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관광지로 개발한 덕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전차가 개통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시장이 서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동래부 동헌 주변을 중심으로 동래읍내장이 생겼고, 노점 이 모인 형태로 시작되었던 시장은 시간이 지나 공설 시장으로 승격되면서 건물도 지어졌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의 동래시장이 되었으며 명실상부 부산을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현재의 건물은 1970년에 지어진 2층짜리 상가로, 1968년 화재로 인해 전부 소실된 후 동래시장 상인연합회가 준공한 것이다. 건물을 한 바퀴 휘 둘러보면 1층은 건물 안팎으로 촘촘히 상가가 들어서 있으며, 도로를 접한 바깥쪽 상가에는 주로 각종 건어물, 약초, 곡물, 야채, 생선 같은 것들을 팔고 있다. 그러다 어디선가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깥과는 또 다른 별천지가 펼쳐진다. 참기름을 발라 반질거리는 김밥, 수조 안에서 헤엄치는 싱싱한 횡감, 고소한 향을 풍기며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튀김이 눈과 코를 사로잡는다. 등반이가 없는 동그란 의자와 길쭉한 벤치들은 손님을 부르며 여기 앉으라는 듯 길게 놓여 있다. 그 말 없는 호객에 순순히 넘어가 부엌의 훈기가 감도는 곳에서 허기를 채우고 2층으로 올라가면 아래와는 또 다른 차분한 분위기가 방문객을 감싼다. 반짝거리는 유리잔과 소품, 식기, 포근한 이불,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뜨개 털실, 멋쟁이 옷과 신발...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고 싶어지는 광경이다. 특히 나무로 된 수저받침이 참 예뻐서 살까말까 고민하다 자리를 뜰 때였다.



“저번에 병원 간다한 건 어떻게 됐소?” 바람결에 언뜻 안부 인사가 들려왔다. 다리는 착실히 멀어지면서도 힐끔 곁눈질을 하자, 근처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아주머니와 귀를 기울이듯 진열대에 몸을 걸친 가게 주인의 모습이 보였다. 의외였다. 당연히 이웃 상인들끼리 하는 대화겠거니 했다. 시장을 돌아다니는 내내 느꼈지만 동래시장엔 오래된 단골이 참 많이 보였다. ‘나 여기 오래 다녔소’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느낄 수 있는 친숙함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 가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때 나을 법한 반가움이 서린 눈빛, 그러면서도 잘 아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익숙한 태도는 한두 번 마주치는 것으로는 쉽게 나오지 않는 것들이다. 아니, 실제로 그들은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내게도 그런 관계가 하나 있다.

본래 다니던 가게는 아니었다. 발품을 팔기 귀찮았던 나는 어머니에게서 시장 단골 가게 리스트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장을 보러 갈 때면 별다른 고민 없이 목록에 있는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리스트에 있는 곳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었다. 거기까지 찾아가기도 귀찮을 때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가게나 들어가기 일쑤였으니까. 당연히 가게 주인들과는 안면이 없었고, 장을 보러 가서 주인분들과 시시콜콜 수다를 떨고 오는 어머니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내게도 단골 가게가 생겼다. 정육점이다. 어머니의 단골 정육점이 정기 휴일인 것을 깜빡하고 고기를 사러 나간 게 발단이었다. 닫힌 가게 대신 평소 습관처럼 아무 곳이나 들어갔고, 그곳의 고기 맛에 반해버렸다. 이후 고기를 살 때면 늘 그곳을 고집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 뿐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가게 주인분이 “또 오셨네요”라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머쓱한 얼굴로 답하던 나도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답할 수 있게 될 즈음, 그 분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포스기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어쩌다 잡채용 쇠고기를 살 때면 생일이냐는 말과 함께 약간의 서비스가 돌아오기 시작할 무렵, 나도 주인공의 가정사를 조금은 알게 될 정도로 대화가 길어졌고, 고기를 사지 않아도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서로 편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어머니처럼 시시콜콜 수다를 떨진 않지만, 적어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서운할 정도의 관계는 된 것 같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고민의 끝은 불현듯 찾아왔다. 앞집에 사는 사람과 마주쳤는데도 인사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을 때, 무의식중에 그를 나와 상관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분명 그는 사전적으로 내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길 가다 마주친 남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오히려 가게 주인과 손님 사이로 시작한 관계가 훨씬 더 친밀했다. 그렇다면 이웃이라는 단어는 이쪽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현관이 인접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맞지만,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보다야 만날 때마다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안부를 궁금해 하는 사이에 더 어울리는 단어라고 느껴졌다.

여기 동래시장에도 비슷한 친밀함이 흐른다. 테이블 앞에 의자를 두었 더 끌어다 두고 오순도순 모여 뜨개질을 하는 뜨개방이라든가, 물건 사러 갔다 가게 주인덕분에 결혼식 일을 맡은 손님이라든가.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아는 대화들이 오간다. 요즘 사회에서는 느끼기 힘든 이웃 간의 정이 은은하게 배어 있다. 아마 오래도록 동래시장을 찾는 사람들 역시, 그들을 자신의 이웃이라 여기고 있지 않을까.

부산의 문화를 담은
로컬 미디어

051FM

정육교 051FM 대표

부산대역 앞의 시끌벅적한 도로를 건너 좁은 골목을 한참 오르면,

언덕배기 끝에서 아담한 녹음 스튜디오를 찾을 수 있다.

사람 대여섯 명이 들어오면 가득 차버릴 것 같은 작은 공간이다.

이곳에서 오가는 수많은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의 귓가에도 가 닿는다.

부산의, 부산에 의한, 부산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051FM에게 이곳은 작은 부산이다.

인터뷰·글 정해린 사진 윤민호, 정육교 제공



부산 사람과 부산을 함께 이야기하다

2017년 12월 4일 첫 방송을 시작한 051FM은 부산의 로컬 팟캐스트를 만드는 단체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인 팟캐스트가 아날로그 라디오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요즘, 051FM의 성장은 현재진행형이다. 051FM의 정육교 대표는 '지속가능한 부산을 담은 부산시민의 팟캐스트 방송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 부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지역의 문화인과 단체들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도 자연스레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동래구의 복합문화공간 온기엣모먼트에서는 '퇴근 후 인문학 라디오 DJ'라는 팟캐스트 기획 프로그램을 책임지기도 했다.

“부산에 사는 분들이 편하게 놀러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을 하려고 해요. 모든 방송에 게스트가 있는 051FM은 청취자보다는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051FM의 구성원은 총 6명이다. 정육교 대표와 각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활동가라고 불리는 DJ들이다. 051FM의 팟캐스트 채널에서는 활동가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매 회마다 게스트들도 출연한다. 051초대석부터 부산인 디음악방송과 다이나믹부산패밀리, 부산청년삼시세끼 등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들은 그야말로 부산을 가득 담고 있다. 051초대석은 특별한 주제 없이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18살 고등학교 생부터 79세 어르신까지 출연하실 정도로 다양한 이들이 다녀갔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던 다이나믹부산패밀리에서는 부산의 다양한 동아리들을 만날 수 있으며, 부산청년삼시세끼에서는 청년단체들의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로컬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라디오PD의 꿈을 가졌던 정 대표는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부달라)'라는 대학생 라디오 동아리에서 3년 동안 활동한 것을 계기로 051FM을 만들었다. 그는 청취율이 높은 대중적인 콘텐츠를 만들기보다 부산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청취자의 수는 프로그램과 게스트 별로 편차가 있어요. 보다 대중적인 소재는 조회 수가 많이 나오죠. 조회 수와 청취자 수만 생각했다면 지금의 방향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역의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중적인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 대표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행복해 할 때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한다. 또 한 가지는 051FM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질 때다.

“저희 방송을 통해 인연이 된 사람들끼리 계속 잘 지내는 것을 볼 때도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보람을 느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오디오 방송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속가능한 부산을 꿈꾸며

라디오가 좋아 051FM을 만들게 됐지만 채널을 운영하다보니 부산의 문화 인프라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더욱 커졌다. 정 대표는 젊은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일자리의 부재와 더불어 부산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저는 부산에 문화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인구 대비 제공되는 문화콘텐츠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에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며,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문화 관련 정보들을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고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담다보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지속하다보면 인재 100명이 서울로 갈 것을 99명으로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말

그 또한 꿈을 위해 오랜 시간 애써왔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 마디라도 전하고 싶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좋아하는 활동을 일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목적만 바라보고 가다보면 오래 갈 수 없어요.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활동이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도 절대로 놓지 말고 만들어야 가야 해요. 꿈을 꾸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작지만 큰 공간, 051FM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다양한 부산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연을 발견하는 보석 같은 곳이 되기도 한다. 부산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는 051FM의 내일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란다.



051FM 방송 채널 및 플랫폼

팟빵 <http://www.podbbang.com/ch/15409>

홈페이지 <http://051fm.creatorlink.ne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051FM>

인스타그램 @051fm

유튜브 채널 051FM-부산시민팟캐스트방송국

051FM 녹음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15번길 106-17 1층

다양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악기. 색소폰

글 김미선

‘중장년층 남성의 로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색소폰은 재즈와 클래식은 물론, 대중음악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악기다. 특유의 크고 시원한 색소폰 소리는 어떤 악기와도 어울리며 동시에 묵직한 존재감을 뽐낸다. 따로 또 같이, 언제 어디서나 매력을 선사하는 색소폰 음색에 잠겨 있노라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에도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된다.

색소폰의 역사는 150년 정도로 다른 목관악기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19세기 중반, 벨기에 국적의 악기 제작자 아돌프 사스는 현악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야외에서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음량이 큰 악기를 만들고자 색소폰을 고안했다. 제작 초기의 색소폰은 주로 프랑스 군악대용 악기로 공급되었고, 이후 20세기 초반에는 재즈의 본고장 미국에서 명성을 떨쳤다. 이후 색소폰은 재즈 장르 자체를 대변할 만큼 절대적 존재로 자리 잡았고, 미국 대중음악의 대명사로도 통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했다. 발명 당시 14종류에 달했던 색소폰은 현재 8가지로 줄었으며 이중 고음역대의 소프라노, 중음역대의 알토, 중저음역대의 테너까지 세 종류가 가장 많이 연주된다. 입문자라면 알토 색소폰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내는 알토 색소폰은 음정을 맞추기가 쉽고, 크기와 무게도 중간 정도로 적당하다. 색소폰을 구입할 때는 먼저 중고 악기로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자신에게 적합한 악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고 악기를 사용할 때도 입이 닿는 부분인 마우스피스만 새로 구입하면 되므로 위생적인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악기를 고른 후에는 연주법을 배우기 전에 악기의 구조나 조립법부터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부품이 어긋나게 결합되면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없을뿐더러, 악기가 분리되면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색소폰은 본체의 무게가 얇기 때문에 평소 악기를 칠 때도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색소폰을 연주할 때는 다른 관악기들과 마찬가지로 복식호흡과 순환호흡을 모두 이용하며, 연주 자세는 선 자세와 앉은 자세 모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다. 악기를 잡을 때는 악기와 연주자가 일직선이 되어서는 안 되며, 15°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알맞다. 목이 지나치게 꺾이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입과 마우스피스의 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 마우스피스에 입을 댈 때는 바른 입모양을 유지해야 보다 쉽게 오랫동안 연주할 수 있다. 윗니는 마우스피스에 대고 아랫입술은 *리드에 대면 되는데, 이때 힘을 빼 리드가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도록 한다. 입문자라면 최소 일주일 이상 분리한 마우스피스만을 가지고 소리가 곧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인내심을 발휘해보자. 그런 다음 운지법을 익히되, 일주일 정도는 정확한 음정을 연주하고 한 달에 한 곡 씩 차근차근 연습해나가면 된다.

색소폰은 금관악기의 볼륨감과 목관악기의 다양한 음색을 합쳐놓은 악기인 만큼 연주자의 호흡에 따라 변화무쌍하고 깊은 음색을 들려준다. 협주와 독주, 밴드 등 어느 음악에서나 빛을 발하는 색소폰의 진가를 알고 싶다면 나만의 색소폰을 만나러 길을 나서 보자.

* 리드: 색소폰에서 울림을 만드는 얇은 멤브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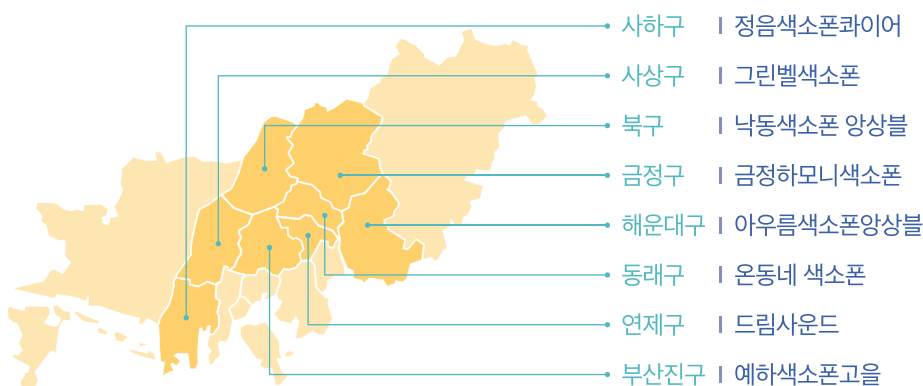
혼자서 어렵다면 함께 해요!

부산시 기악 생활문화연합회 소속 색소폰 동아리



가입문의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051-257-8035



연주 전후 악기 관리

색소폰은 정기적인 점검과 세척이 필요하고 관리에 꾸준히 비용이 지출되는 악기이므로 사후 관리가 가능한 악기 전문점에서 구매하기를 추천한다. 평소 연주 전후에도 악기 내부의 습기와 먼지를 제거해줘야 악기의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리드 교체주기

갈대로 만들어진 리드는 색소폰의 소리를 좌우하므로, 리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리드의 재질에 변화가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전용 보관함을 이용하면 리드를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색소폰 구조



2020. 07. 22 - 11. 25
브로컬리 독자 103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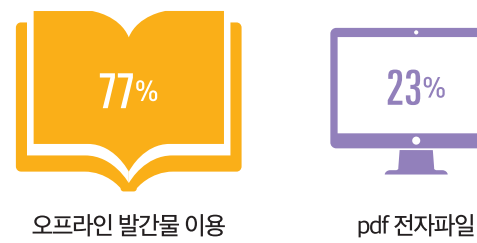
B·LOCALLY 독자 설문조사 결과

2019년 7월 창간호로 첫선을 보인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사계절을 한 바퀴 반 돌아 7호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들려주신 한분 한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에 귀한 참고 자료로써 사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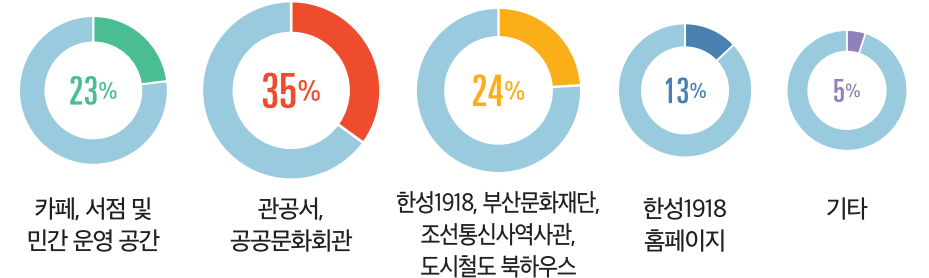


독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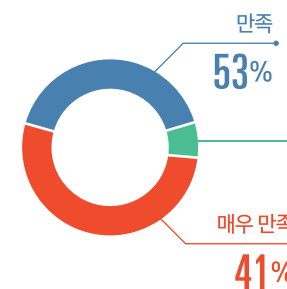
<브로컬리>를 어떤 매체로 읽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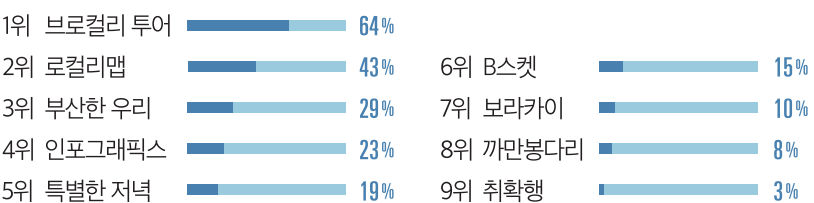
어떤 배포처를 통해 <브로컬리>를 접하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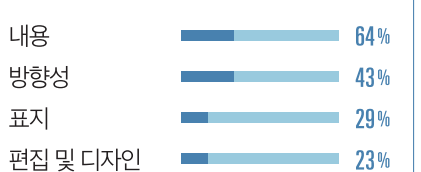
<브로컬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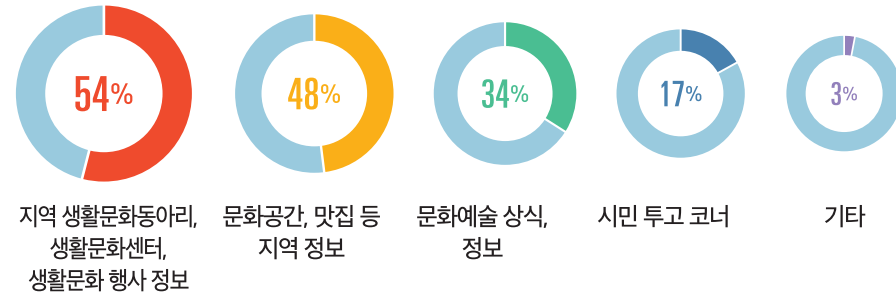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 특히 만족하는 코너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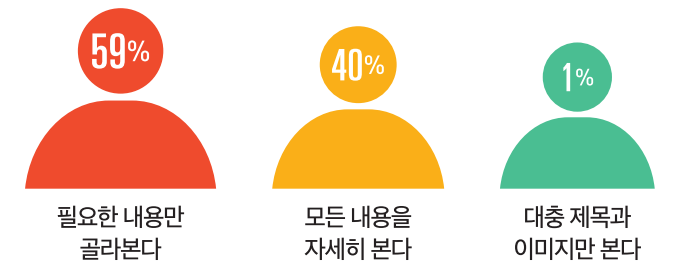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만족스럽지 않은 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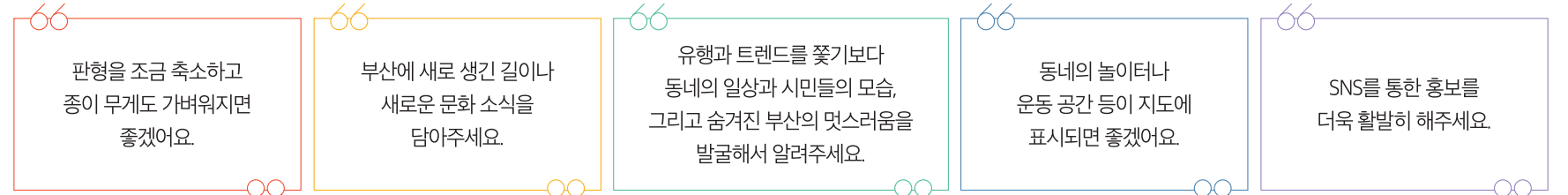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보완, 개선 또는 추가되기를 바라십니까?



귀하는 브로컬리를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독자가 바랍니다



기차길 옆 유쾌한



행복을
주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

동산마을

활기차게 달리는 동해선 동래역 앞에서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구 동래역사를 지나 좁은 길을 걷는다.

한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골목 끝자락에서 동산마을 행복센터를 만날 수 있다.

동산마을은 구 동래역사 근처의 낡은 마을을 도시재생의 한 갈래인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 새롭게 꾸민 곳이다.

유쾌한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기차길 옆 동산마을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자.

글 정해린 사진 윤민호

구 동래 역사를 품고 있는 마을



현재 국가 등록문화재 제753호로 지정돼있는 구 동래역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동해남부선 중 최초로 완공된 역사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다. 당시 동래역은 동해안 지역의 자원 수탈을 위한 거점이었으며, 해방 후에도 동래와 동해안을 잇는 운송 수단이었다. 또한 역사 광장 주변에서 활발히 운영됐던 새벽장터는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만큼 애환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동래역사는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이러한 구 동래역사 근처에는 '왕표연탄'이라는 연탄 공장이 있었다. 1960년대에 문을 연 왕표연탄은 강원도 탄광의 석탄을 동래역을 통해 들여와 연탄으로 만들었다. 연탄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비롯해 철도청 직원들도 많이 거주했었던 역 근처의 마을은 2011년도까지만 해도 다소 황폐했던 동네였다.

도자기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이 번져나가다



센터의 핵심은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고 있으며 매일 바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흙으로 직접 도자기를 빚어보는 것과 초벌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핸드페인팅까지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원하는 형태를 빚어 유약을 바른 후, 재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센터 내에 있는 커다란 가마에서는 도자들이 실 새 없이 구워진다.

이곳의 수업은 거의 수강생 1명당 강사 1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모두 동래구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6개월 동안의 숙련 과정을 거친 강사들은 모두 자원 봉사자들이다. 도자기 체험 외에도 마을해설사가 들려주는 동산마을 투어 프로그램도 있다. 구 동래역사에서 출발해 수안역(임진왜란 유물전시관)과 박차정사의 생가 등을 거쳐 센터에 도착하는 동산투어는 도자기 체험과 음료가 포함돼 있으며 마을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동산투어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운영을 멈춘 상태이지만 빠른 시일 내로 재개될 것을 기대해본다.

낮은 철도 관사를 재생하다



2011년도에 부산에서 12번째로 행복마을을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구에서 철도 관사 건물을 매입해 동산마을 행복센터로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인적이 끊어졌던 관사는 도자기를 체험하며 쉬어가는 곳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센터는 음료를 마시며 쉴 수 있는 북카페와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공간은 옛 관사 건물의 뼈대와 외관이 보존된 철도 문화재이기도 하다. 잔디가 깔려있어 작은 동산 같은 계단을 올라 센터 입구에 다다르면, 구 동래역사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예쁜 우편함이 먼저 반겨준다.

도자기 작품들로 가득한 북카페 내부의 벽면에는 옛 왕요연탄의 모습부터 과거 수안동의 전경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다. 센터 공간은 물론 센터로 찾아오는 길 또한 기차를 테마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졌다. 구 동래역사에서 센터까지 이어져 있는 골목길에는 꽃 모양의 벽화가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곳곳에서 기차 조형물들도 발견할 수 있다.

기차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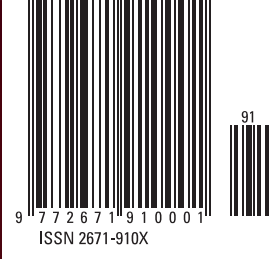


위치 |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348번길 66

문의 | 051-555-7783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일요일 휴무

홈페이지 | <https://dongsanmaeul.modoo.at/>



“ 느껴보세요! 문화와 마스크의 앙상블”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주는 작은 영웅, 마스크로 진정한 영웅이 되다!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민 여러분이
부산의 영웅입니다.

고마워요!
우리의 마스크 영웅

(B) Mask Hero

박광식 지휘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11월 13일부터 위반시 개인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장소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 ✓ 대중교통
 - ✓ 의료기관/약국
 -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 ✓ 집회/시위장
 - ✓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
 -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턱을 만지는
착용



코만 가리는
착용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busan.go.kr)에서 확인하세요.